

주간 2017. 05. 29. ~ 2017. 06. 04.

전남농업정보

138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마늘 · 양파 ·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한국식품, 슬로바키아 온라인마켓 본격 진출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저탄소 농업기술 『무경운 재배』 작형 개발
- 봄 가뭄 지속, 농작물 관리는 이렇게!

정책동향

- 전남도, 가뭄 장기화 대비 단계별 대처 총력
- 전남도, 우박 피해 신속한 복구 총력

사업신청 및 홍보

- 고부가 농업 6차산업 지원정책 한눈에
- 농 · 수 · 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소득 증대



전남도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5~18도, 최고기온: 24~28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3~6mm)보다 많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벼 애멸구,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 ▶ 예보 : 벼물바구미, 멸강나방, 이화명나방, 역병, 탄저병 등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마늘·양파·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 한국식품, 메트로(Metro) 슬로바키아 온라인마켓 본격 진출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정원 장미 만발
- ▶ 저탄소 농업기술 『무경운 재배』 작형 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 가뭄피해 최소화 총력 펼쳐
- ▶ 봄 가뭄 지속, 농작물 관리는 이렇게!
- ▶ 조·기장 재배 시 습해 줄이고, 수량 올리는 방법
- ▶ 콩 철분 코팅 처리로 새 피해 줄이세요
- ▶ 빗물정원으로 여름철 도시 열기 식히세요
- ▶ 올봄 유난히 많은 벼싹파리, 예방·방제 서둘러야
- ▶ ICT 활용 이동성 병해충 실시간 예측 시스템 본격 가동

7. 정책 동향 28

- ▶ 전남도, 가뭄 장기화 대비 단계별 대처 총력
- ▶ 전남도, 우박 피해 신속한 복구 총력
- ▶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발표
-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전남도, 올해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 ▶ 순천시, 황매실 기능성제품 가공공장 준공
- ▶ 나주시, 색소센터 지역농수산물 가공 생산 전진기지 역할 톡톡
- ▶ 광양시,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첫 출하

- ▶ 고흥군, 마을공동급식사업 인기
- ▶ 보성군, 『차 만들어보는 곳』 차 체험 장소로 인기
- ▶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첫 시행
- ▶ 강진군, 귀농이 궁금하시나요
- ▶ 무안군, 연꽃축제 군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

9. 해외 농업정보 42

- ▶ 중남미에 토양분석기술 전수한다!
- ▶ 태국, 식품 수출 호조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6. 5.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최근 2주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옥수수 : 파종한 지역에 향후 건조 기후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와 홍수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 또한 재파종이 가능해 짐으로써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최근 재파종한 지역에 건조 기후가 지속 될 것이라는 예보로 인해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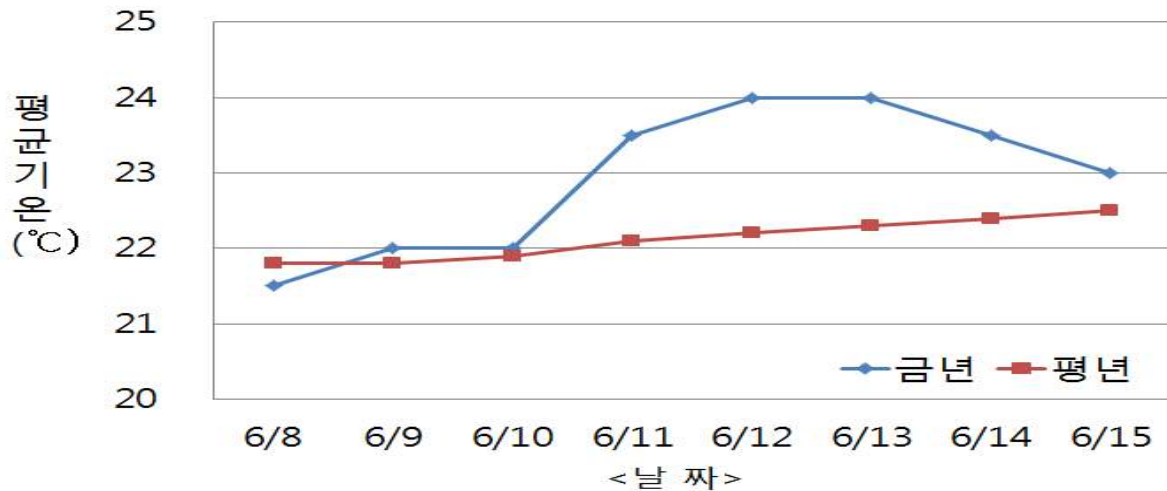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 ▶ 폭염 미디어 공모
- ▶ 고부가 농업 6차산업 지원정책 한눈에
- ▶ 농·수·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소득 증대
- ▶ 야외활동 때 야생 진드기 조심하세요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6월 8일 ~ 6월 15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2.9℃ (평년대비 0.8℃ 높음)
- 최고기온 : 28.0℃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17.9℃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3.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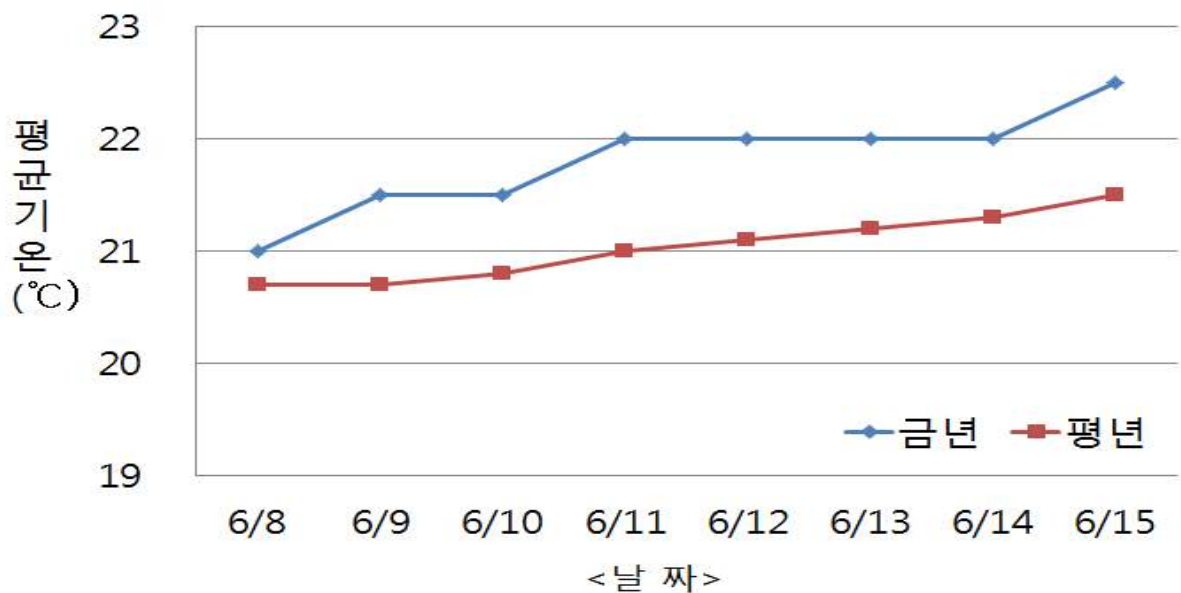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9	22.1	0.8	28.0	27.5	0.5	17.9	17.6	0.3	3.7
6. 08.(목)	21.5	21.8	-0.3	27.0	27.4	-0.4	16.0	17.1	-1.1	4.1
6. 09.(금)	22.0	21.8	0.2	28.0	27.3	0.7	16.0	17.2	-1.2	4.4
6. 10.(토)	22.0	21.9	0.1	25.0	27.3	-2.3	19.0	17.4	1.6	3.8
6. 11.(일)	23.5	22.1	1.4	28.0	27.5	0.5	19.0	17.6	1.4	3.7
6. 12.(월)	24.0	22.2	1.8	29.0	27.6	1.4	19.0	17.7	1.3	3.9
6. 13.(화)	24.0	22.3	1.7	29.0	27.6	1.4	19.0	17.9	1.1	2.9
6. 14.(수)	23.5	22.4	1.1	29.0	27.7	1.3	18.0	17.9	0.1	3.1
6. 15.(목)	23.0	22.5	0.5	29.0	27.8	1.2	17.0	18.1	-1.1	3.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8일 ~ 6월 15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1.8℃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25.5℃ (평년대비 0.1℃ 낮음)
- 최저기온 : 18.1℃ (평년대비 0.5℃ 높음)
- 강 수 량 : 3.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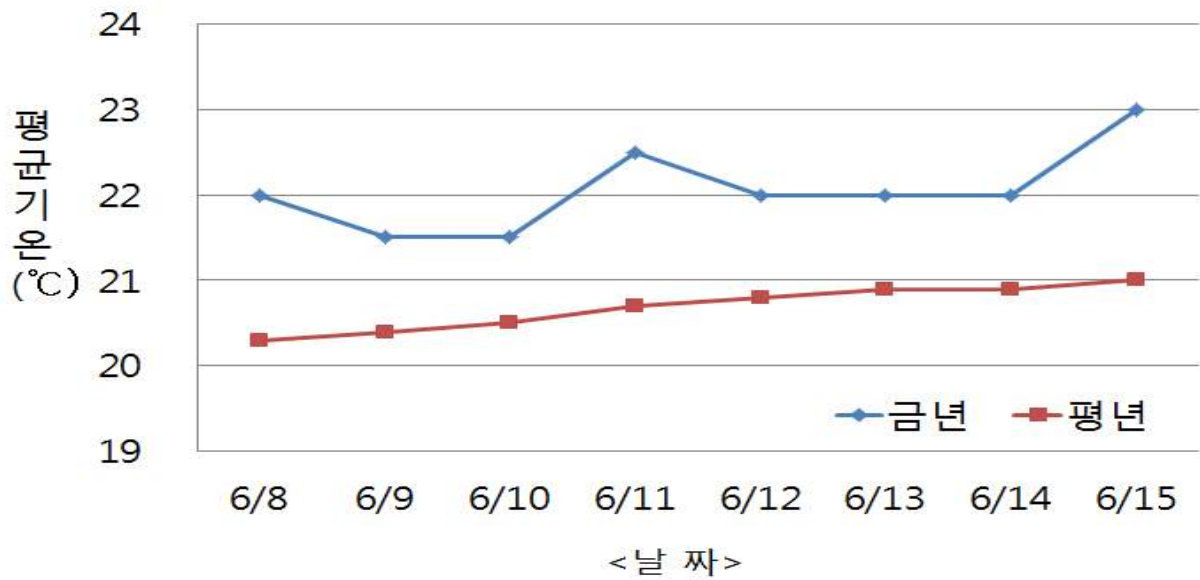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8	21.0	1.4	25.5	25.6	-0.1	18.1	17.6	0.5	3.5
6. 08.(목)	21.0	20.7	5.0	25.0	25.4	-0.4	17.0	17.1	-0.1	4.1
6. 09.(금)	21.5	20.7	0.8	26.0	25.3	0.7	17.0	17.2	-0.2	4.6
6. 10.(토)	21.5	20.8	0.7	23.0	25.3	-2.3	20.0	17.4	2.6	3.9
6. 11.(일)	22.0	21.0	1.0	25.0	25.5	-0.5	19.0	17.6	1.4	3.4
6. 12.(월)	22.0	21.1	0.9	26.0	25.6	0.4	18.0	17.7	0.3	3.4
6. 13.(화)	22.0	21.2	0.8	26.0	25.6	0.4	18.0	17.8	0.2	2.7
6. 14.(수)	22.0	21.3	0.7	26.0	25.7	0.3	18.0	17.9	0.1	2.8
6. 15.(목)	22.5	21.5	1.0	27.0	26.0	1.0	18.0	18.0	0.0	3.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8일 ~ 6월 15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2.1℃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25.3℃ (평년대비 1.0℃ 높음)
- 최저기온 : 18.9℃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4.6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1	20.7	1.4	25.3	24.2	1.0	18.9	18.0	0.9	4.6
6. 08.(목)	22.0	20.3	1.7	26.0	23.9	2.1	18.0	17.6	0.4	4.3
6. 09.(금)	21.5	20.4	1.1	25.0	23.9	1.1	18.0	17.6	0.4	4.4
6. 10.(토)	21.5	20.5	1.0	23.0	23.9	-0.9	20.0	17.8	2.2	4.4
6. 11.(일)	22.5	20.7	1.8	25.0	24.3	0.7	20.0	18.0	2.0	4.3
6. 12.(월)	22.0	20.8	1.2	25.0	24.4	0.6	19.0	18.1	0.9	4.8
6. 13.(화)	22.0	20.9	1.1	25.0	24.4	0.6	19.0	18.2	0.8	4.2
6. 14.(수)	22.0	20.9	1.1	25.0	24.4	0.6	19.0	18.2	0.8	5.0
6. 15.(목)	23.0	21.0	2.0	28.0	24.5	3.5	18.0	18.3	-0.3	5.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06. 01. ~ 06. 15.)

농촌진흥청은 벼 애멸구, 과수 병해충, 채소류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에 대한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벼 애멸구(줄무늬잎마름병)

- 서해안 지역 애멸구가 대량 비래하여 줄무늬잎마름병 피해가 예상되므로 해당지역에서는 정밀예찰과 신속한 방제 실시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 발생이 빠르고 일부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찰·방제 철저, 특히 돌발해충은 『공동방제의 날』에 맞추어 방제

□ 예보 : 벼물바구미, 멸강나방, 이화명나방 등

- 이양 당일 상자에 병해충 동시방제 약제 처리 후 모내기

□ 예보 :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등

- 작물재배 환경관리(배수, 온·습도) 철저, 예찰 및 발생초기 방제

□ 예보 : 과수 검은별무늬병, 갈색무늬병, 세균구멍병 등

- 예방위주의 사전방제(봉지씌우기 전 중점방제) 실시

□ 예보 : 과수 진딧물류, 잎말이나방, 심식나방류 등

- 성페르몬 트랩 등을 이용하여 정밀예찰 실시, 발생초기 적기방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7년산 마늘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2017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가뭄 피해는 적으나 구 생육이 지연되고, 잎마름 현상이 나타나 전년보다 5% 감소 예상
- 2017년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적으나, 전년보다 13~17% 많은 32만톤 내외로 전망

○ 2017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년		24,864	1,257~1,298	312~323
2016년		20,759	1,327	275
평 년		24,831	1,305	324
증감률	전년대비	19.8	-5.3~-2.2	13.4~17.1
	평년대비	0.1	-3.7~-0.5	-3.6~-0.4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월대비 약세 전망

- 6월 간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고, 2017년산 생산량도 많아 전년과 전월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양파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7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감소 전망

- 2017년산 중만생종양파의 생육 상황은 전년보다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5월 가뭄과 고온이 지속되어 구비대가 지연되었고, 잎마름 현상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17년산 양파 전체 생산량은 조생종 및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2~6% 적은 118만 6천~123만 9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

○ 2017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년		19,538	6,073~6,342	1,186~1,239
2016년		19,896	6,528	1,299
평 년		20,157	6,251	1,260
증감률	전년대비	-1.8	-7.0~-2.8	-8.6~-4.6
	평년대비	-3.1	-2.9~ 1.4	-5.8~-1.7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월대비 강보합세 전망

○ 6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감소로, 전년 (680원) 및 평년(860원)보다 높고, 전월(980원)대비 강보합세로 전망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3~6월 정식의향 전년대비 13% 증가 전망

○ 3~6월 대파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전망

○ 호남은 전년 포전거래가격이 높아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조사, 주로 벼·배추 등에서 작목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년과 전월대비 약보합세 전망

○ 6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과 전월보다 낮은 kg당 1,300원 내외로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한국식품, 메트로(Metro) 슬로바키아 온라인마켓 본격 진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슬로바키아 대형유통업체인 메트로(METRO)에서 새로 오픈한 『아시아식품 전용 온라인쇼핑몰(www.asiamarket.sk)』에 백여 개의 한국식품이 정식으로 입점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점한 한국식품은 김치를 비롯하여 라면, 음료, 주류, 소스류, 제과 등 쇼핑물 전체 200여개 입점 품목 중에서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제까지 유럽 내 온라인 쇼핑물에서는 유례가 없는 규모이다.
- 독일계 다국적 유통업체인 메트로(METRO)는 호레카(HoReCa,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고객에게 특화된 대표적인 B2B 유통업체이나, 이번에 슬로바키아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식품 전문 B2C 온라인 쇼핑물을 오픈하였다.
- 이에 aT 파리지사(지사장 김민호)는 메트로(METRO) 슬로바키아 법인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한국식품 입점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다.
- 온라인에서는 쇼핑물 메인페이지에 한국식품 입점 광고, 한국식품 할인쿠폰 발행, 무료배송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슬로바키아 메트로(METRO) 전 매장에서 동시에 판촉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식품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6. 0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05)	1주일전 (05/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1,467	↓ 12.2	↓ 23.3
	콩(백태)	35kg	170,600	170,600	172,000	150,000	162,667	↑ 13.7	↑ 4.9
	고구마(밤)	10kg	26,600	26,400	26,700	29,700	28,700	↓ 10.4	↓ 7.3
	감자(수미)	20kg	36,600	46,000	45,200	30,800	31,187	↑ 18.8	↑ 17.4
채 소 류	배추(봄)	1kg	430	350	393	720	566	↓ 40.3	↓ 24.0
	양배추	10kg	3,860	4,200	4,550	7,650	7,703	↓ 49.5	↓ 49.9
	오이(다다기계통)	10kg	11,667	10,667	11,417	13,500	14,744	↓ 13.6	↓ 20.9
	애호박	8kg	10,000	10,600	9,200	11,350	11,463	↓ 11.9	↓ 12.8
	건고추(화건)	60kg	546,000	546,000	560,000	710,000	778,667	↓ 23.1	↓ 29.9
	풋고추	10kg	49,400	47,400	55,750	35,700	37,583	↑ 38.4	↑ 31.4
	마늘(깐마늘)	20kg	133,200	132,800	136,400	175,000	111,933	↓ 23.9	↑ 19.0
	양파	20kg	20,200	20,000	19,000	14,850	15,857	↑ 36.0	↑ 27.4
	당근	20kg	33,600	33,600	38,300	31,400	31,680	↑ 7.0	↑ 6.1
	대파	1kg	1,500	1,580	1,720	2,090	1,927	↓ 28.2	↓ 22.2
	파프리카	5kg	20,000	19,400	17,600	19,800	21,113	↑ 1.0	↓ 5.3
	참외	10kg	35,800	38,600	51,100	32,500	36,920	↑ 10.2	↓ 3.0
	토마토	10kg	18,600	22,000	19,050	15,000	18,120	↑ 24.0	↑ 2.6
	방울토마토	5kg	18,000	19,200	20,300	13,700	14,553	↑ 31.4	↑ 23.7
	수박	1개	15,200	16,600	18,700	14,550	14,717	↑ 4.5	↑ 3.3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800	40,200	37,200	37,050	50,462	↑ 4.7	↓ 23.1
	배(신고)	15kg	45,800	46,800	43,700	44,600	49,853	↑ 2.7	↓ 8.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05)	1주일전 (05/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1,000	519,000	519,000	527,000	551,667	↓ 1.1	↓ 5.6
	느타리버섯	2kg	11,800	11,200	12,000	12,400	12,473	↓ 4.8	↓ 5.4
	새송이버섯	2kg	7,600	7,800	7,250	7,350	7,737	↑ 3.4	↓ 1.8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67	7,786	7,736	7,603	6,520	↑ 0.8	↑ 17.6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87	2,214	2,066	2,021	1,977	↑ 3.3	↑ 5.6
	닭고기	1kg	5,905	5,967	5,597	5,671	5,595	↑ 4.1	↑ 5.5
	계란(특란)	30개	7,931	7,991	7,854	5,397	5,564	↑ 47.0	↑ 42.5
	우유	1리터	2,527	2,530	2,529	2,549	2,479	↓ 0.9	↑ 1.9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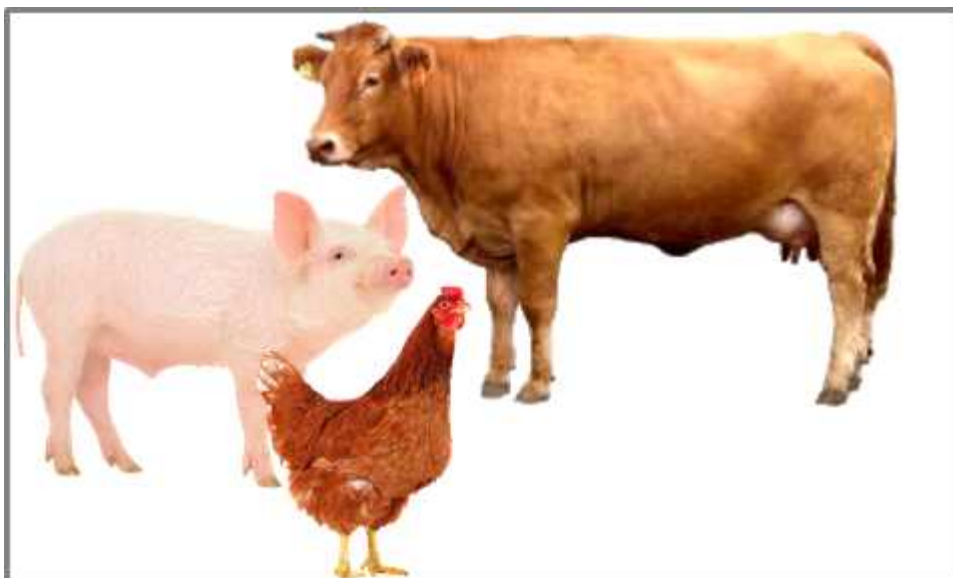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다음 주 제공 합니다.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정원 장미 만발

- 국내 최초 육성, 정원용 장미 6품종 곡성 천사장미원에 만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우리나라에 처음 육성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정원용 장미 6품종이 곡성 천사장미원과 광주시청 장미원에 피어 꽃의 생육과 모양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5년에 육성한 그랜드마치, 프린스가든과 2016년에 육성한 프린세스가든 등 6품종은 영국장미 형태로 꽃이 피는 정원 장미로 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적응력이 좋아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병에 강할 뿐 아니라 꽃수가 많아 외국에서 육성한 여러 품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 특히 프린세스가든 품종은 향이 강한 진분홍색 장미로 생육 속도가 빠르고 꽃수가 매우 많아 어느 곳에 심어도 아름다운 장미이며, K2 품종은 분홍색으로 병에 강하고 꽃의 수명이 길어 2016년도 네덜란드 국제정원장미평가회에서 호평을 받은 품종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저탄소 농업기술 『무경운 재배』 작형 개발

- 저탄소 무경운 농법으로 고령화와 온난화 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와 지구 온난화 대응기술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통농업에 기반을 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기술로 전남 남부 지방에 적응 가능한 기술이며 1회 경운하여 2년 동안 무경운으로 4기작을 재배하는 작형이다. 1기작은 트랙터를 이용 경운해서 4월말 부터 5월 상순에 고추를 정식, 첫 서리가 내리는 시기까지 수확 하면서 재배한다.
- 2기작은 11~12월 초순에 고추 줄기와 지지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 경운하지 않고 무경운으로 2기작 완두콩을 파종하여 다음해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수확하는 작형이다. 이때 완두콩에 시비는 생략한다. 완두콩은 시비량이 적은 원인도 있으나 고추가 흡수하고 남은 비료성분을 완두콩이 흡수하여 자라기 때문이다.
- 3기작은 6월 상·중순에 무경운으로 참깨나 콩 또는 옥수수를 파종 하여 8월말에서 9월 상순 수확하는 작형이다. 3기작 재배도 기비는 생략하고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웃거름을 투입한다.

- 4기작은 참깨나 콩·옥수수 수확이 끝나면 두둑과 고랑에 퇴비와
기비를 살포하고 가을배추를 정식하여 김장철인 11~12월에 수확
하는 작형으로 1회 경운 2년 동안에 1회 경운하여 4기작 재배하는
작형이다.
- 나주시 다도면 이관문(한국저탄소무경운연구회 회원) 농가는 “밭을
약 3,600㎡씩 3등분해서 2년 1회 경운하여 2년 4기작 재배 작형으로
작물을 재배한 결과 경운에 따른 시간과 노동력 및 비료 절감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재배 작물과 재배 횟수가 증가되어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양승구 박사는 “우리나라 전통
농업을 계승한 1회 경운 2년 4기작 무경운 유기재배는 농가 노동력의
고령화와 온난화에 대응한 기술로 탄소 발생 및 소모량이 감소되고,
병해충 발생과 농작물의 생산비가 절감되며, 작부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며 기술을 확대 보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가뭄피해 최소화 총력 펼쳐

- 『현장기술지원 대책반 편성』 찾아가는 기술지원 강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가뭄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농작물 가뭄대응 단계별 대책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기술지원 대책반』을 편성하여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기술지원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 금년 강수량은 5월까지 175mm로 평년의 54% 수준이고 특히 최근 1개월 강수량은 27mm로 평년의 28%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향후 1개월 기상전망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내·외부적으로 가뭄대응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먼저 내부적으로는 과학적인 자료 제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별 밭토양 수분함량과 각 취수장별 염농도를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사례를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 외부적으로는 현장기술지원 대책반을 가동하여 물 부족과 염농도 증가로 일부 벼가 고사되고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는 서남부 간척지를 중심으로 『운광벼』 등 조생종 품종을 확보 예비 못자리 준비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 고추 등 밭작물 피해지역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물주기, 토양 수분증발 억제를 위한 토양 피복, 고랑 벚짚 피복 등 기술 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물체 생육촉진을 위한 엽면시비기술 등 가뭄 피해 최소화 기술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봄 가뭄 지속, 농작물 관리는 이렇게!

- 벼 늦모내기 · 병해충 적기 예방 등 영농 실천사항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현재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57% 수준으로 나타나 모내기와 작물 생육에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물별 대책 및 영농 실천사항을 당부했다.
- 염 농도가 높아 이앙이 늦어지는 간척지와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천수답 등 물이 부족한 논에서는 이앙 한계기까지 최대한 늦모내기를 하도록 한다.
- 늦심기를 할 때는 질소질 비료를 20~30% 적게 준다.
- 마른논에 파종하거나(건답직파) 절수 재배를 할 경우에는 씨뿌리는 양을 10a당 10kg 정도로 늘린다.
- 파종에 들어간 밭작물은 마르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파종 뒤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준다. 늦게 파종할 때에는 평소보다 20~30% 정도 종자량을 늘린다.
- 물대기가 불가능한 밭은 산야초나 비닐을 덮어 수분증발을 막는다.
- 마늘·양파 재배지 중에서 물대기가 불가능한 곳은 이랑에 자른 벗짚과 퇴비, 왕겨 등 유기물을 덮어준다.
- 고추·수박·참외 등 과채류 재배지에서 가뭄으로 작물의 자람 상태가 좋지 못한 곳은 요소액 0.2%를 잎에 준다. 진딧물 등 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고, 석회 결핍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염화칼슘액 0.3%를 잎에 뿌린다.

- 과수원은 올해 새로 심은 묘목이나 어린 과일나무가 있을 경우 뿌리가 있는 땅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두껍게 흙으로 덮는다.
- 물주기는 7~15일간 30mm 정도 비가 오지 않을 때 시작하고, 물주기를 시작하면 일정한 간격을 지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물주머니를 나무 등에 고정한 뒤 바늘구멍을 내어 천천히 물이 떨어지도록 한다.
- 가뭄이 지속될 경우 진딧물, 응애, 잎말이나방 등 해충 발생이 많아지므로 중점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5월 26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역별 가뭄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 상황에 대응한 기술 보급과 현장기술지원을 확대해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조·기장 재배 시 습해 줄이고, 수량 올리는 방법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조와 기장의 파종 시기를 맞아 밭의 환경 조건에 따라 습해를 막고 수량을 올릴 수 있는 재배법을 소개했다.
- 배수가 안 되는 평야지와 곡간지(골짜기 밭)에서는 『높은 이랑 점뿌림 재배』가 적합하며, 반면 상대적으로 물 빠짐이 좋은 경사진 구릉지(낮은 야산)에서는 『평이랑 재배(흩어뿌리기)』가 알맞다.
- 조 재배 시 평야지에서 높은 이랑 점뿌림 재배를 했을 때 평이랑 재배에 비해 40.4% 증수 효과가 있으며, 곡간지 밭에서는 58.5% 정도 수량성이 높아진다. 반면 구릉지(낮은 야산)에서는 평이랑 재배가 높은 이랑 점뿌림 재배에 비해 43.5% 정도 수량성이 높았다.
- 기장 재배 시 평야지에서 높은 이랑 점뿌림 재배를 했을 때에는 평이랑 재배에 비해 104% 증수 효과가 있으며, 곡간지 밭에서는 23.4% 정도 수량성이 높아진다. 반면 구릉지(낮은 야산)에서는 평이랑 재배가 높은 이랑 점뿌림 재배에 비해 26.1% 정도 수량성이 높았다.
- 조와 기장의 재배지 입지조건 및 파종 방식에 따른 토양수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평야지의 평이랑 재배에서는 전 생육기간 동안 토양수분 함량이 30%를 넘어 과습인 상태가 지속됐다. 구릉지(낮은 야산)의 평이랑 재배에서는 강우가 발생한 시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를 넘지 않았다.
- 재배 환경조건 및 파종방식에 따른 수량성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평야지에서는 높은이랑 점뿌림 재배가 평이랑 재배에 비해 62만 1천원/10a 가량 소득이 높았다. 반면 지대가 높은 구릉지에서는 평이랑 재배가 높은이랑 점뿌림 재배에 비해 60만 8천원/10a 정도 높은 소득을 보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콩 철분 코팅 처리로 새 피해 줄이세요

- 철분 코팅 콩 파종 시 새 피해 48%에서 2%로 감소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콩 파종 후 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콩 철분 코팅 방법과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 최근 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콩 작물의 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콩 재배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피해 지역은 충북·경북·강원 등이다.
- 새 피해를 받은 농가에서는 다시 파종하거나 육묘 후 이식 작업을 하게 돼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 무처리 콩 종자 파종 시 새 피해율은 48%였으나 철분 코팅 콩 종자의 새 피해율은 2%대로 매우 낮아졌다. 또한 철분 코팅 효과는 평야지와 산간지, 새가 많은 곳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 시판되는 조류 기피제와 철분 코팅 효과를 평야지에서 비교했을 때 시판 중인 조류 기피제는 피해율이 약 22%, 철분 코팅의 경우 약 3%로 철분 코팅 처리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 콩 철분 코팅 방법은 고무대야에 콩 종자 5kg와 조류 기피제 150ml를 부어 2~3분 동안 고루 섞은 후, 철분 2kg과 소석고 200g을 넣고 1분간 잘 섞어준다. 코팅된 종자는 그늘에 하루 정도 말린 다음 파종한다.
- 코팅에 사용되는 철분은 벼 종자 건담직파에도 사용되는 철분으로 시중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빗물정원으로 여름철 도시 열기 식히세요

- 토양 표면온도 낮춰주고 더운 공기 식혀주며 다양한 식물도 감상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빗물을 모아서 뜨거워지는 도시를 식혀주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빗물정원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 빗물정원은 빗물이 자연스레 모이게 만든 정원으로, 물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심어 저장된 빗물이 차츰 증발하면서 더운 공기를 식혀주고 다양한 식물도 감상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또는 도로변 가로수길 등에 만들 수 있다.
- 빗물정원을 만들 때는 50~60cm 깊이로 땅을 파고 30cm 정도 자갈을 깔아서 자갈 사이사이 빗물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 자갈층 위에 모래층을 약 10~20cm 채워주는데 이는 뿌리 생장이 왕성한 습생식물의 뿌리가 자갈층까지 뻗어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 이렇게 빗물 저장을 위해 만든 바닥층 위에 습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심어주면 빗물정원이 완성된다. 빗물정원은 토양 표면 온도를 낮춰줘 여름철 도심 열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 식물이 없는 토양 표면온도가 40~50℃까지 올라갈 때 식물이 있는 일반 정원의 토양은 35±2℃, 빗물정원은 30±3℃로 도심지 열기를 식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 또한 빗물정원은 이틀 정도 빗물을 모아둘 수 있어 아침·저녁으로 물주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돼 물도 아끼고 물주는 노력도 덜 수 있어 정원관리가 편리하다.

- 잔디밭은 빗물의 27%를 보유할 수 있는데 반해 들꽃(야생화)을 주로 이용하는 빗물정원은 빗물의 41%를 보유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빗물정원 식물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한 식물 중에서 건조에도 강한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지상부 높이에 비해 뿌리가 1.5~2배까지 뻗어가는 그라스류, 사초류, 속새, 홍띠 등은 넓은 면적에서 한 가지 식물로 빗물정원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 잎에 무늬가 들어있어 생장하는 내내 초록색과 조화를 이뤄 경관을 만드는 붉은 잎의 홍띠와 은빛의 사초류들은 한 가지 식물로도 정원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 경관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해 여러 식물을 같이 심을 경우엔 박하류, 호스타류, 그리고 붓꽃, 꽃창포와 같은 아이리스류, 튤립, 구절초 등을 약 15~20cm 간격으로 심어주면 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가 도로에 빗물정원을 만들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컨테이너형 빗물정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 이 시스템은 빗물저장고가 별도로 있는 형태로 폭우에 많은 양의 물을 모을 수 있다. 빗물저장고 위에 다 자란 식물이 심겨진 식재층을 올려 구성한다.
- 컨테이너형 빗물정원은 특허출원 되어 관련 업체로 기술 이전해 보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시와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2년차 기술검증을 마쳤으며 주말농장이나 개인텃밭으로 점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올봄 유난히 많은 벼멸파리, 예방·방제 서둘러야

- 장마 전 벼멸 파종별 알맞은 방제 기술 투입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벼멸파를 재배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벼멸파리가 올봄 유난히 많아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적극 방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 벼멸 파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벼멸파리는 봄부터 장마기 전, 가을에 발생수가 많다.
- 올봄 유난히 벼멸파리가 많은 것은 겨울철 기온상승, 초봄에 강수량은 적었지만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의 연속, 무엇보다 겨울 재배 벼멸농가의 증가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올봄 발생수가 많아 6월 하순 장마기 전에 벼멸파리의 발생수를 줄이지 못하면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벼멸 파종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 예방 및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
- 양송이·느타리 및 톱밥표고 벼멸 재배농가에서는 균상 및 배지에서 서식하는 벼멸파리 알·유충·번데기를 방제하기 위해 포식성 천적(마일즈응애)을 이용한다.
- 포식성 천적의 처리 수는 165~230㎡ 재배사마다 2만 마리(2병)를 골고루 균상 위에 흩어 뿌려주면 된다.
- 양송이버섯에서 처리 시기는 균 접종 후, 복토 전·후, 첫 번째 수확기 전(1주기) 등 3회 처리한다.
- 느타리버섯 농가에서 처리 시기는 멸청제거 후부터 10~20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한다. 병 재배 느타리에서는 포식성 천적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균상 및 배지 재배농가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 톱밥재배 표고 농가에서 처리 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에 10~20일 간격으로 3회, 7월 중·하순 1회, 8월 중·하순 1회 등 5회 처리한다.
- 성충을 유인하는 방법은 양송이에서는 백색 LED(발광다이오드), 느타리에서는 청색+백색 LED 혼합, 톱밥표고에서는 녹색 LED를 이용한다.
- LED는 165~230m² 재배사 면적의 양쪽 벽에 4개씩 8개를 설치한다. LED 설치 수는 재배 방식과 면적, 재배사 여건에 따라 벽에 수평 및 수직으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수도 달리할 수 있다.
- LED는 버섯파리 성충을 유인만 하지 죽이지는 못하므로 LED 등 밑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해 성충을 죽이면 된다.
- 성충을 유인해 죽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친환경 포획 등, 식물에서 분리한 물질을 주원료로 해 연막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김형환 농업연구사는 “연중 버섯파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마기 전인 6월 초·중순에 반드시 포식성 천적과 LED, 끈끈이트랩을 이용해 버섯파리의 발생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친환경 포획등】



【LED+끈끈이 트랩】

■ ICT 활용 이동성 병해충 실시간 예측 시스템 본격 가동

- 아시아 지역 적용 가능한 이동식 스마트 공중 포집기 개발 -

- 병해충 감시 기반시설이 취약한 국내 도서지역에서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의 이동성 병해충에 대한 실시간 예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이동성 병해충을 실시간으로 예찰할 수 있는 장비인 『이동식 스마트 공중 포집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동성 병해충은 벼멸구 등 3대 멸구류와 줄무늬잎마름병 등 5대 바이러스이며 최근 해충의 직접 피해와 함께 매개하는 바이러스병 발생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스마트 공중 포집기는 인터넷을 이용 시간대별 포집수 및 영상 분석으로 멸구류에 대한 정확한 비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비이다.
- 이번에 개발한 『이동식 스마트 공중 포집기』는 기존의 고정식 스마트 공중 포집기보다 크기와 설치비용을 1/4로 줄인 장비이다.
- 또한 소비전력은 50% 줄인 반면, 2배 이상 화질개선과 자동 인식을 위한 영상 분석 시스템 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했고, 도입과 운영관리 비용을 고정식 장비보다 50% 줄였다.
- 2014년에 개발한 고정식 스마트 공중 포집기는 2015년 서해안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국내 40곳에 설치돼, 이동성 병해충을 24시간 예찰에 활용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 농경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식물병 10종, 노린재류와 진딧물류, 신규 문제해충 15종, 잡초 10종에 대해 실시간으로 발생위험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지도와 행정구역별로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위험 변동성 예측 및 전망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식량 수급, 식량안보에서의 정책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영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적응도가 뛰어난 작물의 선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 농촌진흥청은 현재 제공되는 35종의 병해충 잡초뿐만 아니라 흙 토람과 연계해 주요 병해충 잡초 약 300여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병해충 예찰과 피해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전남도, 가뭄 장기화 대비 단계별 대처 총력

- 상황실 운영... 용수 개발, 급수작업, 재해보험 확대 등 체계적 대응 -
- 전라남도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농업용수 개발과 급수작업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 가뭄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은 154mm로 평년(423mm)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저수율은 58.1%로 낮아 가뭄 심화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강화됐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5월 22일부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시군과 함께 부서별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전라남도는 5월 26일 가뭄대책사업비로 도 예비비 15억원과 시군비 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긴급 배정해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하상 굴착, 간이 양수장 설치 등 용수개발사업을 지원했다.
- 이어 5월 22일과 30일에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00억원을 조기 지원해 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에도 선제적이고 항구적 가뭄대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 또 유관기관 및 시군 가뭄대책 관계관 회의(2회)를 개최하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가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태를 점검, 관계관에게 가뭄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 이와 함께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단계별 세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최악의 가뭄을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1단계로 6월 2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관정 개발과 다단양수, 소방차와 물차 동원 등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강우에 대비해 예비못자리를 설치, 2모작 등 모내기 대책을 추진한다.
- 또 가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6월 9일까지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벼 재해보험에 서둘러 가입토록 지도하고 있다.
- 2단계 대책으로 비상 급수작업과 함께 남부지역 모내기 한계기인 6월 30일까지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은 콩 등 다른 작물 대파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 지금까지 신안·무안·진도 등 간척지에서 논 물마름과 시들음, 고사 등 총 380ha에서 피해가 났다. 밭작물도 일부 지역에서 고구마·고추·참깨 등에 시들음 피해가 나타나 생육이 저조하다.
-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긴급 농업용수 개발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는 등 가뭄대책에 행재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농민들도 농업용수 절약과 다단양수 등 급수작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 남 도, 우 박 피 해 신 속 한 복 구 총 력

- 피해농가 경영 안정위해 정밀조사 후 복구비 지원 등 계획 수립키로 -

- 전라남도가 5월 31일 우박 및 돌풍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현장을 6월 1일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우박과 돌풍으로 순천 월등, 곡성 겸면, 담양 용면금성, 장성 북이·북하 일원 농작물 1천 635ha에서 낙과 및 잎 손상 피해가 발생했다.
- 품목별로는 매실 585ha, 배 224ha, 사과 120ha, 단감 149ha, 복숭아 120ha, 밭작물 309ha 등이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해당 시군에 피해상황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 작목인 블루베리·오디·매실은 조기 수확, 사과·복숭아 밭작물은 병해충 방제 등 응급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전라남도는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한 정밀조사 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 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였다.
- 이상고온 현상 등 빨라진 여름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전년보다 10일 앞당겨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 태풍,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저수지·양배수장·방조제 등 약 70천여개 수리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보수·보강을 마무리하여 재해예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 농업인 스스로가 재해대응이 가능하도록 농촌지도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과 시군, 읍·면을 통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 등 리플릿 2종을 제작 배포하고, 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재해대응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농업인 스스로도 재해에 사전대비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 30일 시행된다.
 -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
 - 위반자 교육은 전문기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교육효과 증대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 3일 시행된다.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 종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
-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이 6. 4일부터 부과된다.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
-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이 6. 3일부터 시행된다.
 -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전남도, 올해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 대상 담양 대숲맑은쌀, 최우수상 함평 나비쌀 등 수상 -
- 전라남도가 전남쌀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2017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에는 담양 대숲맑은쌀, 최우수상은 함평 나비쌀, 우수상에 영암 달마지쌀골드·해남 한눈에반한쌀·고흥 수호천사건강미, 장려상은 강진 프리미엄호평·보성 녹차미인보성쌀·영광 사계절이사는집·무안 황토랑쌀·장흥 아르미쌀이 선정됐다.
- 브랜드 쌀은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상품 차별화는 물론 전남쌀 품질 고급화로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실시했다.
- 평가결과 전체 브랜드 쌀의 항목별 평균점수가 2016년보다 향상됐으며, 특히 상위 브랜드 쌀의 품질, 식미점수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브랜드 쌀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정된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판촉 및 품질개선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1~3천만원이 지원되며 『2017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 등 판매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순천시, 황매실 기능성제품 가공공장 준공

- 10종 가공장비 구축해 매실농축액·매실고·매실잼 등 생산 -
- 순천시는 5월 29일 월등면 운월리에서 조충훈 시장, 한국매실 사업단장, 매실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매실 기능성 제품 가공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 매실은 전국적인 과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매실을 전문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매실농축액을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가공공장 준공을 통해 고품질 매실식품 소재를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됐다.
 - 순천시는 고품질 매실식품 소재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곡성군과 연합(한국매실사업단) 사업으로 29억원을 투입해 10종의 가공장비를 구축하고 매실농축액·매실고·매실잼 등을 생산한다.
 - 가공공장은 연면적 1089㎡이며, 추출실, 크린룸, 세척실, 종합 포장실, 냉장 및 냉동창고, 사무동으로 구성돼 있다.
 - 특히, 크린룸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하도록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기준을 적용했으며, 올 하반기에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가공공장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생매실 1000톤을 가공하여 농축액 5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지역 농·특산물인 배·복숭아·감·인삼·고구마 등도 함께 위탁 가공하여 가공 공장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출처 : 순천시

■ 나주시, 색소센터 지역농수산물 가공 생산 전진기지 역할 톡톡

- '16. 10 개소 이후, 8개월 간 전남지역 농·수산물 500톤 가공생산 -

-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이후인 8개월 간 지역 농·수산물 500여톤을 가공해 수도권지역으로 공급, 지역농산물 가공생산 전진기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주 배 36톤, 강진 매생이 47톤, 해남 고구마 3톤, 당근 52톤, 딸기 8톤, 단호박 21톤, 양송이 32톤, 밀싹 8톤 등 총 250톤의 농·수산물을 임가공해 수도권지역 건강 기능성식품 업체에 공급했다.
- 천연색소 추출 및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의 제조·가공 시설을 갖춘 센터는 과즙 및 착즙종류의 음료와 농축액, 동결 건조에 따른 천연색소 분말 등의 형태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시제품 개발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하루 최대 8톤까지 원물 처리할 수 있는 생산기능과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 농산물 원형 그대로 판매되던 전남지역 농·수산물이 센터 임가공 기술을 통해 농수산물 형태가 10분의 1가량으로 크게 축소돼, 운송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는 수도권 업체들로 인해 가공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전남지역은 농산물 재배에 있어 알맞은 기후조건과 풍부한 농·수산물 자원을 사계절 내내 공급받을 수 있어, 수도권 식품회사에서 센터의 임가공 제품을 적극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첫 출하

- 2013년부터 시범재배, 수입산에 비해 맛과 향 뛰어나 -
-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애플망고가 첫 출하된다고 밝혔다.
- 시는 2013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작목으로 고소득 아열대 과수 기반 조성하고자 『지역브랜드(아열대과수) 실용화사업』을 실시해 6농가를 선정하고 7,000m²에 애플망고를 식재했다.
- 시는 애플망고의 성공적 재배를 위해 시범농가에 자동화하우스, 제습난방기 설치, 난방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고 있다.
- 광양산 애플망고는 현재 3kg(1박스, 6과)에 1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직거래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마을공동급식사업 인기

- 올 상반기 96개 마을에 200만원씩 지원 -

-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마을공동급식사업』은 농번기철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점심준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점심을 제공해 이웃 간의 정도 나눌 수 있는 사업이다.
- 군은 올 상반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96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로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에도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 20명 이상 급식가능한 마을이어야 하며, 지원시기에 따라 상·하반기 각각 25일간 지원한다.
- 군에서는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조리원에게 보건증을 지참토록 하고, 공동급식소 취사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청결유지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
- 한편, 올 하반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오는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차 만들어보는 곳』 차 체험 장소로 인기

-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6월부터 본격 운영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한국차문화공원에 자리한 『차 만들어보는 곳』 체험장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군은 차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만들기, 차음식 만들기,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차 체험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 『차 만들기』는 관내 다원의 대표가 강사로 나서 녹차뿐만 아니라 청차·홍차·떡차·유자단차 등을 교육한다.
- 『차음식 만들기』는 녹차 떡케익과 홍차 스콘·쿠키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객에게 완성도 있는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 『천연화장품 만들기』는 녹차추출액과 고가의 화장품에 들어가는 발효원액, 좋은 워터를 사용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제품들과는 다르게 스킨, 로션, 크림 등을 만들어 지성피부와 트러블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보성군청(<http://boseong.go.kr>) 또는 한국차박물관(www.koreateamuseum.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단체 15인 이상 가능하고, 체험료는 1인당 1만 5천원이며 예약은 보성녹차사업소에 전화(061-850-5952)로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보성군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첫 시행

- 장흥군은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 관련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바우처카드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다.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면 연간 10만원의 바우처카드가 지원된다.
- 바우처카드는 영화관, 미용실, 도서 구입, 스포츠 활동, 놀이공원, 펜션, 식당 등 문화·복지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 1차 사업확정자 457명은 6월 1일부터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접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7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를 거쳐 8월경 2차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 출처 : 장흥군

■ 강진군, 귀농이 궁금하시나요

-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에 관심 있는 도시민 35명을 초청해 귀농 팜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Farm투어는 오는 6월 24~25일까지 이틀간 주말을 이용해 실시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소개와 귀농정책,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귀농사관학교 견학, 선배귀농인 농가 방문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가우도, 도암 석문공원 등의 강진 문화재 탐방과 가족이 함께하는 수확체험을 진행해 가족이 함께 귀농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저녁시간을 이용해 선배 귀농인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귀농생활에 대해 묻고 답하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선배 귀농인과 멘티·멘토의 관계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군 담당자는 “귀농 팜투어를 통해 귀농·귀촌 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귀농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면 지금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청은 강진귀농사관학교(061-434-2431)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도 문의 가능하다.

* 출처 : 강진군

■ 무안군, 연꽃축제 군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

- 공연, 체험, 행사 3개 분야 공모 -

- 무안군은 8월 12~15일까지 4일간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제21회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한다.
-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를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나눔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 올해 축제는 『군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무안군 관내 개인, 단체, 동아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무대공연행사, 체험부스운영, 기타 행사제안의 3개 분야다.
- 또한 공연 및 체험뿐만 아니라 관내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한층 더 개방하여 질서유지, 교통안내, 환경정화 활동 등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또는 e-메일로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6월 중 참가단체를 확정하게 된다.

* 출처 : 무안군

9. 해외 농업정보

◆ 중남미에 토양분석기술 전수한다!

- 5. 29.~ 6. 2. KoLFACI 토양분야 전문 인력 초청훈련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oLFACI)의 토양정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나라 사업 책임자들을 초청해 훈련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에는 KoLFACI 회원나라 중에서 토양정보 사업을 수행하는 7나라(콜롬비아·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파라과이)에서 사업 책임자와 연구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 『중남미 토양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선진화된 한국의 GIS(지리정보체계) 활용법 소개, 토양분석 실습과 검정결과 활용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중남미 토양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을 배양할 계획이다.
- 중남미의 경우 토양분석을 위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 토양정보 구축 및 활용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번 훈련으로 관련 기초 분석 기술과 활용방안을 습득함으로써 토양분야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흙토람』과 같은 선진 토양정보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중남미 회원나라들에게 지향할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수사례로서의 한국과 농촌진흥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이규성 기술협력국장은 “이번 초청훈련은 KoLFACI 토양정보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회원나라 전문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다”라며, “특히 중남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한 농업분야의 발전에 필수요건인 사람 간의 관계망 강화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KoLFACI는 현재 중남미 12나라를 대상으로 △적정 물 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실증 △카카오 우수 품종 및 GAP 실증 지역네트워크 구축 △유기질 및 생물비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토양 재배환경 개선 △중남미 원예작물 수확 후 품질관리 선진화 모델 구축 △중남미 토양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등 5사업을 추진 중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태국, 식품 수출 호조

- 태국 국제 무역진흥국 사무총장인 Malee Choklumlerd은 올해 태국 식품수출이 작년 79억달러에 비해 5%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식품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태국은 수입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여러 종류의 식품을 생산 및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함
- 세계 최대 통조림 참치 생산업체, Thai Union Group의 CEO인 Thiraphong Chansiri는 미국을 태국의 가장 중요한 식품 수출시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함
- Thiraphong은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다른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아직 단정 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다며 “활발한 대미 태국 식품수출의 요인은 제품의 품질, 가격, 친환경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함
- 미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태국의 3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으로, 2016년 태국과 미국 두 국가 간의 전체 무역 금액은 총 365억 달러, 대미 태국 수출이 24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식품 수출액은 총 43억달러로 작년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현재 2017년도 1분기 대미 식품수출 8.7억달러로 작년대비 5.9%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6. 05.(시카고 선물거래소)

□ 주요 생산지역의 건조 기후 전망으로 곡물 선물 가격 하락

○ 밀 선물시장 상황(▼0.04%)

- 밀 선물 가격은 주요 생산 지역의 건조 기후에 따라 예상보다 빠른 수확이 전망되면서 최근 2주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풍부한 국제 공급량 및 재고량 또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4%)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최근 파종한 지역에 향후 건조 기후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와 그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 또한 재파종이 가능해짐으로써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상황(▼0.4%)

- 대두 선물 가격은 최근 재파종한 지역에 건조 기후가 지속 될 것이라는 예보로 인해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하였음. 그러나 남미 수출 선적의 노동 관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격 하락은 제한적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폭염 미디어 공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염 미디어 공모(폭염 예방 홍보 동영상 및 무더위쉼터 대표 마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방법

- 공모기간 : '17. 6. 1. (09:00) ~ 6. 20.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ucc@kodipa.or.kr)
- 제출서류 : 작품파일, 작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문의안내 : (접수 문의)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62~3
(공모전 문의) 국민안전처 044-205-5239 (혹은 5236)
- 심사발표 : '17. 6. 30.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

□ 폭염 예방 홍보 동영상

- 작품내용 : 폭염 취약계층,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 영상, UCC
- 작품규격 : 3분 이내, 720×480픽셀이상, 300MB이내

□ 무더위쉼터 대표 마크

- 작품내용 : 노인시설, 도서관 등 무더위 쉼터를 대표하고, 국민들이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표 마크 디자인, BI
- 작품규격 : A2사이즈, ai파일과 jpeg변환파일 모두 제출

* 출처 : 전라남도

◆ 고부가 농업 6차산업 지원정책 한눈에

- 전남도, 9개 지원기관 251개 시책 모은 『종합 안내서』 배포 -
- 전라남도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남농업 6차산업의 인증경영체 육성을 위해 『전남농업 6차산업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 종합안내서 발간은 3월 개최한 전남농업 6차산업 유관기관 성과 공유 보고회에서, 전남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모아 종합적으로 홍보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 안내서에는 농업 관련 9개 유관기관별로 추진하는 6차산업 지원 사업을 1차산업인 생산, 2차산업인 가공, 3차산업인 체험·관광·마케팅으로 분류해 총 251개 사업을 자세히 실었다. 9개 유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농협중앙회,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식품산업연구센터다.
- 안내서는 200여 6차산업 인증경영체에 배부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농식품 제조 경영체 등에 추가 배부해 더 많은 농업경영체들이 6차산업 인증경영체로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수·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소득 증대

- 전남도, TV홈쇼핑 입점 맞춤형 컨설팅 등 권역별 설명회 -

- 전라남도는 5월 31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도장터 입점업체, 도지사품질인증업체, 온라인 희망 농가 등 2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서부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이어질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남도장터 입점업체와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전국단위 매출 효과가 큰 TV홈쇼핑에 대한 농업인의 손쉬운 입점을 위한 컨설팅과 홈쇼핑 입점 요령 설명이 이어졌다.
- 특히 농·수·특산물 온라인 운영 관계자들의 소통 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현장 전문가들이 백화점 입점 전략, 마케팅 기법, 온라인 동향, ICT 홍보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판매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인 남도장터 입점 절차, 입점 요령, 품질 관리, 상세페이지 작성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했다.
- 전라남도는 서부권을 시작으로 남도장터 입점업체, 도지사품질인증업체, 온라인 희망 농가 1천 200명을 대상으로 6월 7일 나주에서 북부권, 13일 순천에서 동부권, 21일 해남에서 남부권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출처 : 전라남도

◆ 야외활동 때 야생 진드기 조심하세요

- 전남도, 농번기철 풀밭 눕지 않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당부 -
- 전라남도는 최근 무더운 날이 지속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하절기 야외활동에 나서는 도민들에게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SFTS는 참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9월 중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농촌지역 50대 이상 연령에서 주로 발병한다. 매개 진드기에 물리면 6~14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쳐 38~40℃의 고열이 3~10일 지속되며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과 전신 근육통증, 림프절 종창이 발생되고 심해지면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계 증상, 혼수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난다.
- 올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명의 환자가 신고됐고, 전남에선 1명의 확진환자가 나왔다. 이 질환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농·축산업 종사자는 작업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전라남도는 4월부터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과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 또 질병정보 모니터링 상시 가동, 감염병 역학조사팀 운영, 하절기 집중 방역대책 등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2017 기술보급사업 영농기술정보 모음집』 발간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채소·과수 재배기술, 농산물 안전성, 농산물 가공, 농업경영 등 총 17분야 1,297건의 최신 영농기술 정보를 담은 모음집을 발간했다.
- 이 모음집은 농촌진흥청이 2016년 시험연구로 개발한 기술을 총망라한 자료로써 농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들을 모아 정리했다.
- DVD형태로 된 모음집은 영농분야, 기술 활용유형, 제목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검색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 이번에 보급하는 영농기술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의 『영농활용기술』에서도 볼 수 있다.
- 분야별 만족지수는 품목별로 토양비료와 축산, 농업경영정보, 농식품 자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분야별로는 곤충산업과 축산생명환경, 버섯, 농산물안전성 관련 기술 순으로 높았다.
- 최신 영농기술을 농업현장에 활용을 원할 경우에는 자료에 등록된 기술 담당자와 협의하면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의 영농기술정보는 농업기술 길잡이, 농업기술지, 리플릿·작은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138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